

KIGEM

글로벌 Top 건설기업 '블랙 & 비치(Black & Veatch)'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블랙 & 비치(Black & Veatch)社は 어니스트 베이트먼 블랙(Ernest Bateman Black)이 나탄 토머스 비치(Nathan Thomas Veatch)를 만나 미국 미조리주 캔사스시티에서 건설회사를 1915년에 창립한 것이 그 원류이다. 종업원소유기업인 블랙 & 비치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10여개를 상회하는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최대 민간 기업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블랙 & 비치 창립자

블랙 & 비치를 소개하기 전에 캔사스시티(Kansas City)라는 도시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캔사스시티는 캔사스주에 위치한 캔사스시티와 미조리주에 위치한 캔사스시티가 합쳐진 쌍둥이 도시이다. 두 도시는 도로 하나를 놓고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나 규모 면에서 미조리주 캔사스시티가 월등히 크다. 주경계선에 두 도시가 인접한 특징으로 인해 미국 대공황 금주령 시절에는 마피아들의 활발한 불법 주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지금의

캔사스시티에는 블랙 & 비치 외에도 번스 & 맥도웰(Burns & McDonnell)이나 HNTB Cos. 등과 같은 대형 설계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

2. 전력 및 통신 부문 1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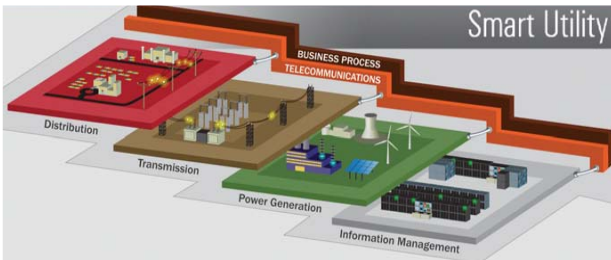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장 큰 경쟁사인 벡텔이 국내 건설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블랙 & 비치는 다소 생소하다. 블랙 & 비치는 보수적인 중부지역 성향이어서 그런지 해외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 내수 시장에 주력했다. 이와는 반대로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벡텔은 국제적으로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렇듯, 블랙 & 비치도 과거 단순 시공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기업(Engineering Contractor)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되었다. Engineering News-Record지 순위 기준으로 블랙 & 비치는 전력과 통신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 시설을 포함하는 환경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블랙 & 비치의 ENR 순위

| | |
|----|--|
| 전력 | #1 Top 50 in Power #1 Top 25 in Fossil Fuel #4 Top 15 i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
| 통신 | #1 Top 50 in Telecommunications #1 Top 10 in Towers and Antennas |
| 환경 | #5 Top 25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7 Top 50 in Water Supplier |

3.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차별성 강조

‘다른 세상을 만들라(Building a World of Difference)’. 블랙 & 비치가 내세우는 기업 모토이다. 블랙 & 비치는 사업 추진상의 해법을 찾는 시작점은 항상 대화와 소통임을 강조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랙 & 비치는 사업 파트너가 스스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고객과의 반복된 거래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 60여 년 이상 블랙 & 비치를 다시 찾고 있는 고객이 있을 정도이다. 블랙 & 비치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부문에서는 미국내 1,2위권의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사인 스프린트社가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하나이다. 최근 유가 폭등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고효율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벡텔이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해 왔다면 블랙 & 비치는 GE사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블랙 & 비치가 제공하는 스마트 유틸리티

4.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1세기의 역사를 지닌 선도 건설기업들은 자기들만의 핵심 기술을 가져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간파했다. 경쟁사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기술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며 꾸준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블랙 & 비치는 발전, 전력 공급, 석유 및 가스, 환경 처리 부문 등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계획, 설계, 구매, 시공, 건설 관리, 프로그램 관리,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에 진출한 9,000여명의 글로벌 직원들은 동시에 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사업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단계, 분야, 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환경 부문에서 블랙 & 비치는 과학자, 생물학자, 음향기술자부터 경제학자, 보건 및 안전 관리자, 규제 전문가, 변호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진 스페셜리스트를 확보하고 고객이 원하는 사업 계획, 설계, 라이선싱, 집행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표 2. 블랙 & 비치의 개요

| | |
|---------|--|
| 글로벌화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직원수: 9,000명 • 진출 지역: 6개 대륙 100여개 국가 • 7,000개 이상의 사업 동시 수행 가능 • 미국내 11번째 규모의 종업원소유 기업 |
| 진출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수자원, 통신, 운송 컨설팅, 연방 및 국방, 환경, 오일 및 가스 부문 등 |
| 제공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관리, 기후 변화 대처, 시공, 디자인-빌드/EPC, 엔지니어링 자문, 엔지니어링 및 설계, GIS/정보 관리 기술, 사회기반시설 계획, 운송 자문, 구매, 프로그램 관리, 스마트 유틸리티 등 |

5. 맺음말

중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성장해 왔으며, 이미 국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한편 국내의 주택 사업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해외 건축시장에서도 수익성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으로 남아있는 에너지, 통신, 환경 플랜트 부문마저 중국을 포함한 후발 신흥국가 건설업체들에 의해 추격당한다면 국내 건설사들의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일지 모른다. 블랙 & 비치와 같은 100여년의 전통을 가진 글로벌 선도 건설기업이 그동안 어떻게 시장 변화와 고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 벤치마킹이 주는 의미가 특별할 수 있다.

· 김원태 e-mail : wontkim@cerik.re.kr